

재보선 앞둔 여야 선거체제 돌입

한, 내일 후보 공모마감-민, 강원 순회경선 정운찬 vs 손학규 '빅매치' 성사여부 주목

3월 임시국회를 끝낸 여야가 4·27 재보선을 40여일 앞둔 이번 주부터 당을 재보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치러지는데다 대권 주자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구제역과 전·월세대란, 고물가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일꾼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5일 후보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17일 열리는 당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를 등 국회의원 보결

선거의 공천 룰에 대해 본격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3일 열리는 국민경선인대회의에서 후보자를 확정하는 강원지사 선거는 현재 전화면접을 통한 4만2000명 규모의 대규모 선거인단 모집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미 강원지사 후보군을 최문순 의원과 이화영·조일현 전 의원 등 3명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공신위를 꾸리지 않는 대신 경선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춘천·원주·강릉권 등 권역별 국민참여경선(당원 50%+일반 국민 50%)을 거쳐 다음달 5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 분당을의 경우 후보자 선정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남 김해를은 일단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선출한 뒤 야 4당 단일후보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여야간 '빅매치' 성사 여부는 금주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공천신청이 오는 15일 마감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를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5일은 그동안 후보로 거론돼온 거물급들의 거취가 결정되는 시한으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선 분당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정운찬 전 총리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민주당에서도 이에 맞서대로 손학규 대표를 후보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빅매치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강재섭 전 대표가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등 박계동 전 의원의 경선전이 가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정 전 총리의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 전 총리의 차출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7명의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등록한 김해 보결선거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금주 초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15일 공천신청 마감에 앞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사 보선을 놓고서는 고교 선후배이자 전직 MBC 사장을 지낸 한나라당 엄기영 대 민주당 최문순 예비후보 간 대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모두 예선을 통과해야만 결선에서 맞붙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가 이번 주 나란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강원 지역에 내려가 선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춘천과 화천을 돌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5일과 17일 각각 양양과 원주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시중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촉구 민주당 천정배(왼쪽부터) 최고위원, 김재윤 의원,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의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봄방학' 맞은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발걸음 '총총'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3월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사실상 '봄방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정치적 비전 및 리더십 실증'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 '물갈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에서는 개혁 공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역구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 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 총선에서 출마할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한편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는 지역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 개최전까지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넓히는 한편 느슨해진 조직을 바짝 조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물갈이 대상으

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전남 다선 의원들은 '정치적 역할론'을 강조하며 지역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전략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다면 중앙 정치무대에서 주요 직책을 확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정권재창출 과정에서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발췌부터 광주·전남 각 지역구에서는 소리가 없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 차출론' 부상... 與 후보가 변수

오는 4·27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보결선거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초읽기'에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를 누를 수 있는 '필승 영입카드'가 보이지 않는데다 당내에서는 손 대표 '차출론'이 점차 부상하면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마와 불출마 어느 쪽을 택하든 모두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아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손 대표가 만약 출마를 강행한다면 "당을 위한 희생적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게지만 정작 선거에서 지면 향후 대권가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분당 을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내지 못한 채 자신마저 불출마를 선택하면 경기지사 출신의 당 대표로서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의 선택은 결국 한나라당의 선택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등 거물급이 나선다면 역설적으로 한나라당 텃밭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거물과 한나라당 텃밭에서 싸워 이긴다면 한자리 수의 지지율을 받들기며 명실상부한 야권의 대안 후보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나라당에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가 나선다면 '이겨도 분전'이라는 점에서 손 대표 '차출론'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일단 강원지사 선거에 전력투구하면서 한나라당의 공천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분당 출마를 권유받았던 서울대 조 국 교수는 지난 11일 "손 대표는 나가기 싫겠지만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대통령 전용기 기체이상으로 회항

이명박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공군 1호기)가 12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지 약 1시간 40분 만에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10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한 전용기는 이륙 30여 분만에 서해 상에서 기체 아랫부분에 진동과 함께 소음이 약 10초가량 감지돼 오전 9시5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는 기체 점검을 마친 뒤 재급유를 하고 이날 오전 11시15분께 UAE로 다시 출발했다. UAE 도착시각은 2시간 가량 늦어졌으나 도착 후 첫 일정인 아크 부대 방문 등 예정된 일정 소화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회항한 것은 민간 항공사의 특별기를 전용기로 바꾼 이후 처음 발생했으며,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여수엑스포, 지속가능개발 비전 제시"

MB, UAE 관영통신과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내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 "해양 오염,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인류가 직면한 해양 문제와 관련해 환경 보존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관영통신 WAM과의 서면인

터뷰에서 "UAE의 여수박람회 참가는 풍부한 문화적 유산, 해양 개발·보존 노력 등 다양한 모습을 한국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 관계를 언급, "양국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의 비교 우위를 살린다면 양국간 윈윈(win-win),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실로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비위 공직자 즉각 퇴출"

전남도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전남도가 금품·향응 수수 비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8.38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12위)에 머무르는 등 청렴도가 크게 하락한데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비위 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고 전남도 투자·출자기관 취업도 영구히 배제하기로 하는 등 비위 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한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또 공무원 비리 신고 보상금도 신고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 주체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선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부패 근절 처벌기준을 강화한 만큼 사전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만족

결산공고를 접수합니다!

전화 (직)062.227.9600 FAX 062.227.9500 E-mail dd8111@hanmail.net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